

10/29

낙태죄 존치 시도

정부 국무조정실

규탄 기자회견

I. 회의 배경

- '19.4.11.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후속입법 추진중, 입법 형식과 내용에 대해 정부내 이견
 - 낙태죄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모든 낙태의 일률적 금지는 위헌.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시점 고려해 낙태가능시기 구체적 절차 등은 입법재량으로 개선(금년말까지)
-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입장 조속히 마련 후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필요(부처간 one-voice 유지)

III. 향후 계획

- 종교·여성계 반발은 문체부·여가부에서 주도적으로 완화 노력
-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를 맞춰 갈등기간 최소화
 - 형법은 규제심사·상임위 없이 법사위 심사 진행 가능. 모자보건법은 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회 상임위(복지위) 심의 필수
- 입법예고(8월)→ 정부안 제출(10월말)→ 국회 심의·통과(~12월)

출처: 한겨레, <'성평등자문위 의견수렴' 말뿐...복지부도 낙태죄 입법 일방통행>

**지난 27일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통해
정부가 낙태죄 관련 논의에 있어서
임신중지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비밀스럽게 개정안을 준비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모두의페미니즘은
29일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목적으로 밀실아합을 행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밀실야합** 실화냐 ”

형법 개정만 철회하라

“ **앞에서는 쑥불정부** ”

뒤에서는 밀실야합 쑥불정부 규탄한다

“ **무늬만 쑥불정부** ”

낙태죄를 폐지하라



기자회견은 ‘모두의페미니즘’ 김예은님,
‘낙태죄는역사속으로ㄸ팀’ 홍희진님,
‘청년하다’ 류기환님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현 정부가 겉으로 내세운 허울뿐인
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또한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후로부터 1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입법시한이 약 70일 남은 시점이 되어서야 공개한 형법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변함없이 여성에게 낙태의 죄를 물었다. 여성의 마지막 월경일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점, 의사가 임신 중지 수술을 계속 거절하여 낙태 허용 분기점을 넘길 가능성 등 정부의 형법 개정안은 모순과 허점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정부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고, 우리는 의혹 가득한 시간을 보낼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형법 개정안 기습 발표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이었다.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5개 부처 차관회의에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의 임신 중지를 '태아 살해 행위'로 규정하였고, 형사처벌을 유지 및 상담과 숙려 기간을 도입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종교 및 여성계 반발은 문체부와 여가부에서 주도적으로 완화 노력'할 것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를 맞춰서 갈등 기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모든 것들이 국가가 직접 밀실에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향후 계획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여성계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고, 복지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하였다. 여성의 목소리는 애초에 정부의 안중에도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밀실 속에서 '부처간 (one-voice)를 유지'하며 퇴보하는 역사를 만들어 낼 뿐이었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여성 당사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가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개정안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허탈함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2016년 시민들은 직접 정부를 끌어내렸다. 현 정부는 광장의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시린 손으로 든 촛불로 세운 정부였다. 촛불이 세운 민주정부라며 겉으로는 여성친화적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기만이었음이 드러났다. 3년 전 박근혜 정부는 비참한 결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현 정부 역시 부끄러운 발자취만을 남기고 결국 역사 위에서 끌어내려 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밀실 밖으로 나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성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현실을 직시하라. 2016년 시민들의 촛불이 정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2020년의 촛불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를 향한 것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역사를 퇴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를 규탄하며 마지막으로 외친다.

밀실야합 실화나 형법 개정안 철회하라
앞에서는 여성친화 뒤에서는 밀실야합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무늬만 촛불정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모두의 페미니즘은
‘낙태죄를 역사속으로’ TF팀을
만들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 522 295604 예금주 ㄱㅇㅇ